연예기획

팬티만 걸친 채 '도끼액션' 내 생애 최고 수준 노출신

피플 People Q

영화 '황해'서 조선족 킬러 '면가'로 돌아왔다
자신만만! 김/윤/석

▶'황해'에서 잔인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살인청부업자를 맡은 김윤석은 카메라 앞을 떠난 일상에서는 가족을 아끼는 지상한 아빠이자 남편이다.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김윤석은 누구? 1968년생. 충무로에서 가장 바쁜 연기파 배우 가운데 한 명. 부산 동의대를 졸업하고 1988년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로 연기 시작. 이후 대학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했다. 결혼 이후 부산으로 내려가 연기와 잠시 떨어져 지냈다. 대학시절 부산에서 함께 지내며 막역한 우정을 나눈 송강호의 설득으로 서울로 올라와 연기를 다시 시작했다. 2006년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부터 존재를 서서히 알렸다. 2006년 아침 드라마 '있을 때 잘해'로 시청자들에게 인정받은 후 같은 해 영화 '타짜'의 아귀 역으로 비로소 관객에게 연기자로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07년 500만 관객을 동원한 '추격자'로 연기파 배우로 인정받았고 청룡, 대종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남우주연상을 휩쓸었다. 2008년 '거북이 달린다', 2009년 '전우치'에 이어 올해 '황해'까지 매년 쉬지 않고 출연작을 내놓는 부지런한 배우.

'추격자 3인방' 하정우-나홍진 감독과 재결합
말랑말랑한 촬영 포기…피 튀는 살육신 열연

촬영 3개월 전부터 옌볜사투리 익히느라 진땀
'황해'는 '추격자' 보다 10배 잘 만들어진 작품

"이젠 멜로가 하고 싶은데…당분간은 힘들듯"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실력을 한층 돋보이게 만드는 건 자신감이다.

배우 김윤석(42)은 요즘 자신감이 넘친다. 22일 개봉한 '황해'가 초반부터 관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다. 동료 배우들과 영화감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VIP 시사회에서 나온 긍정적인 평가 역시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윤석은 "1년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관객들이 영화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반겼다.

김윤석을 만난 건 '황해'의 개봉날인 22일 오전 11시. 전날 열린 VIP시사회 직후 친한 배우, 감독들과 새벽 5시까지 '센' 술자리를 가졌다는 그는 숙취보다 영화에 대한 호평이 가져다주는 설렘에 취해있는 듯 보였다.

"어느 영화 감독은 프랑스 영화 '예언자'에 비유해서 평가해주더라고요. 친하니까 좋게 말한 거겠죠."

김윤석은 무슨 질문을 해도 거침없는 대답을 했다. 특히 2007년 자신에게 영광을 안긴 '추격자'를 만든 나홍진 감독, 하정우와 다시 만나기로 결심한 이유를 묻자, 의외로 도발적인 대답을 했다.

"부담이요? 그건 우리 같은 인종들을 몰라서 하는 얘기에요. 하하. 치밀한 연출력을 갖춘 감독의 방식이 마음에 드는 데 망설일 필요 있나요. 오히려 나홍진 감독, (하)정우와 다시 만난 건 흥행 보증수표 아닌가요. 오랫동안 '추격자'로 쌓아온 유대감도 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 "우리의 재결합, 좋아할 걸 알고 있었다."

'황해'는 운명적으로 세 사람의 뭉쳤던 이전 작품 '추격자'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영화다.

김윤석은 "감독과 두 명의 배우가 같다는 것 말고 완전히 다른 영화"라고 강조했지만 단순히 이야기를 떠나 화려한 추격 장면과 파국을 맞는 밑바닥 인생들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추격자'와 겹친다.

때문에 과연 '황해'가 '추격자'를 능가할지는 관객들이 갖는 최대 관심사다. 기획 단계부터 줄기차게 제기된 이런 궁금증에 대해 김윤석은 "우린 신경 쓰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다시 만나면 관객들이 분명 좋아할 테니까, 우린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황해'에서 김윤석은 중국 옌볜의 살인청부업자 면가 역을 연기했다. 겉으론 개장수이지만 실은 온갖 불법을 일으키는 인물. 도박 빚에 시달리는 택시운전사 구남(하정우)에게 빚 탕감을 빌미로 살인을 지시해 사건을 주도한다. '황해'는 한국으로 밀항한 구남이 엉뚱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뒷수습을 위해 면가 역시 한국으로 뒤따라오며 벌어지는 추격전을 그렸다.

"면가는 퍼펙트한 비즈니스맨이에요. 건드리지 않으면 도발하지 않아요. 면가가 먼저 공격한 건 한 번도 없잖아요. 곱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죽이려고 칼 들이대니까 망치를 든 거예요."

4개의 소제목으로 나눠진 영화에서 김윤석은 3번째 이야기인 '조선족' 편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하정우와 대등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출연 분량은 의외로 적다.

"면가는 더 나오면 안 돼요. 적당한 타이밍에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하)정우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나이에는 그래도 돼요, 하하. 고생한 만큼 정우에게 충분한 보상이 영화에 담겨 있잖아요. 나홍진 감독과 다시 만났을 때, 말랑말랑하게 찍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 식스팩 없는 몸매로 팬티차림 도끼액션 화재

김윤석은 영화에서 '도끼액션'을 소화한다. 피 튀기는 살육 장면은 '추격자' 보다 한 수 위다. 혼자서도 10여 명의 장정을 상대한다. 김윤석은 도끼와 망치, 때로는 족발까지 손에 쥐고 싸움에 나선다. 그가 보여주는 액션은 꽤 잔인하지만 카리스마 탓에 좀처럼 눈을 뗄 수 없다.

"저는 역할이나 상황에 굉장히 차갑게 접근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시작하면 뜨거워질 걸 알고 있으니까요."

면가의 잔혹성이 드러나는 첫 장면에서 김윤석은 팬티만 입고 등장한다. 지금껏 그가 출연한 영화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노출 장면. 옌볜 호텔 방에서 기습을 받는 이 장면에서 김윤석은 사각 팬티만 걸친 채 한 손에 도끼를 들고 나온다.

"솔직히 가장 반응이 없는 시사회가 기자시사회잖아요. 그런데 그 팬티 장면에서 여기저기서 '헉'소리가 나오던데요. 그 팬티도 옌볜에서 산거예요. 만약 제 배에 식스 팩이 있었다면 그렇게 놀라진 않았겠죠."

옌볜은 '황해'를 얘기할 때 뺄 수 없는 장소. 김윤석은 촬영 3개월 전부터 현지 사투리를 익혔고 사전 답사 차 한 번, 촬영을 시작하고는 3~4개월 동안 옌볜에서 살았다.

"마인드만 바꾸면 그 환경도 좋고, 거기에 맞춰 살면 된다"는 김윤석은 "심심할 때 정우랑 슈퍼마켓 돌아다니면서 식용 두꺼비 구경도 하고 재미있었어요"라고 했다.

사람 좋아하기로도 유명한 그는 "배우는 복 받은 직업"이라며 "이 나이에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다"고 했다. 영화가 주로 지방에서 오랫동안 촬영하는 탓에 그 지역 숙소를 장기 임대해 합숙을 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

김윤석은 "이런 얘기하면 스태프들한테 미움 받을 텐데"라면서도 "영화 한 편 찍으면 그 숙소에서 네 다섯 커플씩 연인이 탄생한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꺼냈다.

"배우들만 연애 못하고 방에 있는 거죠. 불쌍해요. 영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커플 탄생도 늘어나요. 뭐 사는 게 다 멜로 아니겠어요?"

언젠가 멜로 연기도 도전하고 싶다는 김윤석이지만 당분간 관심사는 '황해'가 될 전망이다.

"'추격자' 때도 관객 반응이 그렇게 뜨거울지 몰랐는데, 웰메이드 영화로 치면 '황해'는 '추격자'의 10배쯤 돼요. '황해'는 집에서 TV로 볼 영화가 아니에요. 꼭 스크린에서 봐야할 영화입니다. 하하."

두 딸 앞에선 한없이 약한 아빠
덥수룩한 외모 미안했다

출연하는 영화마다 강한 인상을 남기지만 그는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자상한 아빠이자 남편이다.

올해로 결혼 9년차를 맞은 김윤석은 슬하에 9살, 6살인 두 딸을 두고 있다.

"두 딸은 날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김윤석은 "혼낼 때도 있지만 딸들은 아빠를 거리낌 없이 대한다"고 했다.

'황해'를 촬영하는 동안에도 틈틈히 둘째 딸의 유치원 등하교를 도우기도 했던 그는 "맡은 역할 탓에 기른 수염과 덥수룩한 헤어스타일로 딸에게 굉장히 미안했다"고도 털어놓았다.

매년 1~2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지만 틈만 나면 가족 여행을 떠난다. 그가 어렵게 시간을 내서 함께 여행을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건 어느 날 자녀들과 반목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에요. 사춘기가 닥치면 대부분 아빠랑 말도 잘 하지 않는다는 데 저는 그 순간을 맞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가족 여행. "여행을 많이 다닐수록 서로 돈독해진다"는 그는 "당장 내년 2월부터 새 영화 '완득이' 촬영을 시작하는 데 1월에 시간을 내서 꼭 가족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편집 | 김현우 기자 pudgala@donga.com

62년 밥 호프 내한…얼어붙은 판문점에 울려퍼진 캐럴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2월 25일〉

서부전선 최전방인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의 애기봉에 처음 불이 켜진 것은 1954년. 소나무로 만든 트리가 세워졌고 성탄절을 앞둔 시기 불을 밝혔다.

1971년 30m 높이의 철골구조탑이 그 자리에 다시 세워졌다. 2004년 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 안에서 각기 선전활동을 중지키로 함에 따라 애기봉 등탑의 불은 꺼졌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21일 애기봉 등탑이 7년 만에 불을 밝혔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군의 경계도 강화됐다. 성탄의 기쁨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진 애기봉 등탑은 북한 당국에게는 상당한 경계의 불빛이 되고 있는 셈이다.

1962년 북측의 살벌한 시선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른 미국의 톱스타가 있었다. 그해 오늘, 미국의 배우 겸 코미디언 밥 호프(사진)가 판문점을 찾아 자신의 공연단과 함께 북한군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다.

밥 호프는 이날 KBS를 찾아 김영호 아나운서와 20여분 동안 대담을 갖고 특유의 익살과 유머 감각을 발휘했다.

당대 대중문화의 흐름을 주도한 톱스타

밥 호프의 방한은 커다란 관심거리이기도 했다.

밥 호프는 12월 22일 미모의 할리우드 배우 라나 터너를 비롯해 '미스 USA' 아마디 카보트, 가수 아니타 브라이언트 등 50여명의 공연단을 이끌고 주한미군 위문공연차 한국을 찾았다. 그는 23일 인천 부근의 미군 부대 공연을 비롯해 모두 여섯 차례 무대를 펼치며 많은 미군들의 박수를 받았다.

밥 호프는 미국에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코미디언 겸 배우. 1940년대 빙 크로스비와 영화 '로드 투…(Road To…)' 시리즈로 인기를 모은 뒤 최고의 톱스타로 떠오른 그는 기네스북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엔터테이너'로 기록될 만큼 전설적인 스타다.

한국전쟁 당시 마릴린 먼로와 함께 전장에 나선 미군들을 위문한 그는 2차 대전과 베트남전 때도 전장의 장병을 위문하는 공연의 발길을 멈추지 않았다.

1964년 역시 위문공연차 내한했고, 이어 1970년과 1972년에도 한국을 찾았다. 정부는 밥 호프의 업적을 치하하며 3등 보국훈장 천수장을 수여했다.

밥 호프가 생전 한국을 비롯해 해외 주둔 미군을 위문하기 위해 돌아다닌 거리는 무려 1000만km. 60년 동안 이어진 그의 공연 발길은 2003년 향년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에야 멈췄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864호(2010.8.12)
사망보장은 기본, 실손의료비에 연금전환도 가능합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왜 많은 분들이 교보 다이렉트 종신보험을 선택했을까요?
무배당 교보다이렉트 유니버셜종신보험 II
교보실손의료비특약은 3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80-399-0099 KYOBO 교보생명